

2013 5, 12(일) 일기

윤창중이라는 참 모자라는 자가 미국 워싱턴에서 참 부끄러운 짓을 했다. 그 자의 뉴스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며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런 자를 등용한 인사권자의 안목도 참 짧지만, 그 사건을 수습하는 방식이나 자세 또한 참으로 치졸하다. 앞으로 정국과 국정 운영이 어찌 흘러갈지 답답하다.

개성공단이 닫힌 지 어느새 열흘이 넘었다. 사람들의 윤창중 같은 비생산적인 뉴스들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져 간다. 닫기는 쉬워도 다시 열기는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굳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개성의 모습, 개성에 대한 기억을 나 스스로 되새기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계속해야겠다. 오늘은 개성 선죽교 옆의 표충비에 대해서 facebook에 올린다.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어 찾아보니 벌써 몇 년 전에 이런 글을 써놓은게 있어서 그대로 올립니다.

아무리 불세출의 스타가 나서서 온 나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점령하여도,

나는 자료 떨어질 때까지 나의 "개성애가"를 올리렵니다.

너도 나도 개성에 가서 다 직접 보고 오셔서

더 이상 내가 "잘난 척"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림 1 표충비각

선죽교의 서편 길건너에는 자못 큰 비각이 있다.

담장을 넓게 둘러치고 정문도 삼문으로 모양을 갖추었다.  
비각 안에는 검은 돌로 된 비석 둘이 동향을 하고 있다.  
둘다 머리를 쭉쭉 빼고 있는 거북이 형상의 귀부 위에  
3m가 넘는 크기의 비신이 팔작 지붕 모양의 이수를 얹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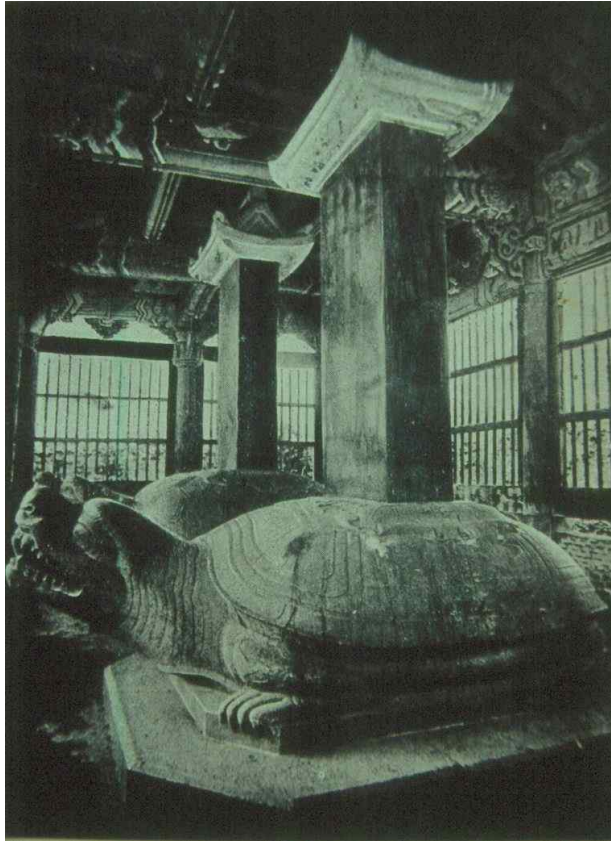


그림 2 표충비 전체 모습. 자료 사진

매우 공을 들여 만든 비석으로서 보존 상태도 아주 좋다.  
북쪽 비석의 전면에 새겨진 글의 제목은 어제 어필 선죽교시.

“도덕과 순정한 충성 만고에 걸쳤으니  
포은 선생의 높은 절개는 태산 같도다.  
(道德精忠亘萬古 泰山高節圃隱公)”



그림 3 표충비 전면

어제 어필 이라면 임금이 짓고 쓰고 했다는 뜻인데.  
 누구인가? 이 시를 지은 임금은?  
 비의 후면을 보니 거기 답이 나와 있다.

“어제 어필 선죽교 소지(小識)  
 내가 즉위한 지 16년 되는 경신년 9월 3일에 목청전(穆淸殿)을 찾아 뵙는데  
 가는 길가에 다리가 하나 있으니  
 이것이 고려조의 시중 포은 정공의 절개를 바친 곳이라.  
 다리에 이르러 행진 음악을 그치게 하고  
 시를 지어 비석에 새겨 세우라 하였다.  
 그 내용은 대체로 공의 도덕을 기리고 공의 정순한 충성을 표창하기 위함이라.  
 이 어찌 단지 나의 일시의 감정 때문이라?  
 옛날의 도덕과 충성을 숭상하는 깊은 뜻을 본받기 위함일지라.  
 승정 기원후 113년 겨울에 세우다.”

경신년은 서기로 1740년, 영조 16년이다.  
 승정기원후 113년은 1741년이니 개성에 행차한 이듬해인 영조 17년에 비석을 세운 것이다.



그림 4 귀부 머리 부분

남쪽에 있는 비석은 북쪽의 것을 거의 그대로 본떴는데 크기만 조금 더 크다.  
당저(當寧) 어제 어필로 시 뒤 귀가 새겨져 있다.

“우뚝한 충성과 크나큰 절개는 온 우주에 빛나고,  
우리나라의 바른 도덕은 공에게 의뢰하여 섰도다.  
(危忠大節光宇宙 吾道東方賴有公)”

이 역시 비 후면에 어제 선죽교 소지가 있어 내력을 일러 준다.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여신이 8갑자되는 때  
내가 제릉과 후릉을 찾아 뵈고 송도의 문묘에 배알하고 목청전을 찾아 뵈며,  
선죽교 돌다리 위의 핏자국을 뵈오니 새로 쏟은양 완전하도다.  
아! 공의 정순한 충성과 도학은 나도 모르게 감흥을 불러 일으키도다.  
500년 뒤에도 존송하고 사모하노니 진실로 동방 대현의 종장이로다.  
나같은 소자가 어찌 공을 스승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으랴?  
삼가 영조대왕의 시 한 귀를 차운하여 이어받아 글을 짓는 뜻을 본받고자 하노  
라.  
송정 기원후 245년 봄에 세우다.”

태조께서 나라를 여신지 8갑자는 1392년부터 480년 뒤니까 1872년, 고종 9년이 된다.

승정기원후 245년은 1873년, 고종 10년이다.

“나 다녀가노라.”

어디 가서 이런 것 쓰고 싶은 마음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임금이나 철없는 애들이나 다 같은가보다.

아무려나 이 비석이라도 있어서

쭈쭈한 선죽교에 불거리 하나를 보태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페이스 북에 댓글이 달렸다. 적지 않은 이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 주니 고맙다.

김수원 너도나도 개성에 직접 다녀와서... 다함께 개성찬가를 부를 그날을 기다려 봅시다.

9시간 전 모바일에서 · 좋아요 취소 · 1..

Rica Park 여말 3은.

포은 목은 야은.. 맞나요? ㅋㅋ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 읊는다고

역사 공부 안 해서 쥐뿔 모르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더 보기

9시간 전 모바일에서 · 좋아요 취소 · 1..

홍순민 김수원 난 뭐 꼭 개성만 꼭 짚어서 좋아하는건 아니고... 평양도 원주도, 그리고 삼수갑산에 희천강개 방방곡곡 다 가보고 싶고, 노래가 된다면 찬가를 부르고 싶은데... 다만 지금 그나마 뺨뿔 열리는 듯하던 곳이 콕 닫혀 버리니... 하 답답하여 우선대상으로 삼는 것. 다시 확 열어젖히고 가야죠. Rica Park 그거 외우는 게 모르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요. 흐름을 타고 나의 감각과 생각의 틀을 짜야 하는거 같아요. 탄소리지만서두... 분노는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나요?

8시간 전 · 좋아요 · 2..

장경상 개성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이.. 여기 한명 추가입니다..ㅎㅎ 기회가 된다면 개성 뿐만 아니라 평양이든 묘향산이든 가 봐야죠..

8시간 전 · 편집됨 · 좋아요..

홍순민 장경상 번호표 받아 가소. 향도 되어 앞장 서소.

8시간 전 · 좋아요 · 2..

Rica Park 네 그래서 분노 빼려구요. 걱정 해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기운 만땅 받고 와서 다시 긍정 모드.ㅋㅋ 해피해졌슴당. ^-^

8시간 전 모바일에서 · 좋아요 취소 · 1..

정덕부 교수님 매번 망설였는데 막내(막연한 희망)로 계에 들어 갈 수 있을까요ㅎ  
ㅎDNA로치면 아주 극미하게 남아있겠지만서도. .연일 정가입니다

8시간 전 모바일에서 · 좋아요 취소 · 1..

홍순민 정덕부 누가 말리겠노? 접수하고 원서도 쓰라니까... ㅎㅎㅎ

8시간 전 · 좋아요 · 1